

지역 매아리

부안군, 귀농귀촌 캠페인 전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최근 부안 IC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 환영과 함께 홈커밍 귀농귀촌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홈커밍 캠페인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귀농귀촌을 통한 외부 인구 유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석 귀성객 환영행사를 통해 고창의 추억과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귀농 귀촌 희망자를 발굴하고 도시지역 및 인근 광역지자체 거주 출향인들이 장래에 부안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과 사)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홈커밍 홍보단은 9월 11일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톨게이트 출구를 빠져나오는 귀성 차량들을 일일이 반갑게 맞이하는 명절인사와 함께 연휴동안 부안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 및 먹거리 소개 및 귀농귀촌 안내 책자를 전달했다.

부안군은 귀농인의 농업창업지원, 농가 주택수리, 임시거주시설 지원 등 귀농인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귀농귀촌박람회와 찾아가는 홈커밍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내일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정읍시보건소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내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에게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이다.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것이다.

올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은 국가지원 확대로 생후 6개월부터 12세이하 어린이(2007년 1월 1일생부터 2019년 8월 31일 생까지)이다.

예방접종을 처음 맞는 어린이는 이날 17일부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하고, 접종 경력이 있는 어린이는 10월 15일부터 1회 접종하면 된다.

정읍시에는 17개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있으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시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rip.cdc.go.kr)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접종 대상 확대와 접종률 향상을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률을 낮추고 질병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감염병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최근 베트남에 '정읍 배'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다

고품질 '정읍 배' 베트남 수출길 올라... 첫 수출 12톤에 이어 약 16톤 수출

정읍시는 시의 특산물인 고품질 '정읍 배'가 베트남 수출길에 올라갔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베트남에 '정읍 배'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베트남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정읍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이날 상차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배 공신회 참여 농가와 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상차식에서 시는 친환경 정읍 배를 베트남으로 수출해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고국의 맛있는 배 맛

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하게 될 배는 첫 수출 12톤에 이어 약 16톤, 금액으로는 3400만원에 이른다.

시는 해외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 정읍시 관계자와 정읍조공 대표, 배·토마토 생산 농가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의 대형매장을 방문한다.

현지에서 배와 토마토 등 판촉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수출확대에 힘을 보낼 계획이다.

정읍산품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정진 대표는 "정읍 배는 공선회원들의 공동선별과 공동출하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당도가 뛰어나 수출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질 배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수출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에 게르마늄 온천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 온천대축제 고창유치에 힘써와



대한민국에서 선택받은 도시만 열 수 있다는 온천축제. 2019온천축제가 다음달 2일 고창 석정온천관광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라도의 시골 온천을 전국에 알리고 있는 인물이 있다.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 고창이 고향인 조 정책관은 "온천은 땅에서 솟아 나오는 자연의 축복이다"며 "산, 들, 바다, 강, 갯벌에 온천까지 갖춘 고창은 대한민국 힐링여행의 메카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정책관은 석정온천에 큰

애정을 보였다. 조 정책관은 "고창의 진산인 방죽산을 병풍삼아 탕에 몸 누이면 짜뿌듯 지친 피로가 싹 가신다"며 "온천을 중심으로 주변의 골프장, 펜션, 산사부터 바다, 강, 갯벌을 모두 볼 수 있어 가족, 연인, 어르신 등 모두에게 맞춤형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석정온천은 프랑스 투르드 샘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정받은 게르마늄 성분인 함유된 온천이다. 기적의 샘물로 불리며 환자를 치료한 프랑스 투르드 샘물보다 게르마늄 함량이 더 높다.

고창군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한국온천협회, 대한온천학회 등 관계 협력기관의 공동 협력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은 "올해 13회째를 맞는 온천대축제는 기간 온천이용 '봄'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며 "온천대축제의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국내 온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의 계기가 마련돼 체화된 온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0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고창석정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고창 석정온천으로 떠나는 따뜻한 가족 힐링 여행'을 주제로 온천수카데일쇼, 온천3종 경기, 패밀리 족욕 체험, 석정힐CC 마실길 걷기 등 각종 공연과 치유를 위한 체험행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온천발전 학술 심포지엄, 전국 온천종사자 교육도 전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휠체어리프트 장착 대형버스 전달식 가져

고창군이 최근 군 장애인복지관에서 휠체어리프트 장착 대형버스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식은 유기상 고창군수, 장애인복지관 직원과 이용자, 관련부서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 군수는 휠체어에 앉아 리프트에 직접 탑승해 승·하차를 시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버스 내부를 살폈다.

특정버스는 45인승 버스에 매립형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해 거동이 어려

운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장애인복지관은 전용 버스가 없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제한된 인원만 임대 승합차를 활용했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희망이 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노후경유차 LPG 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

부안군은 노후경유차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을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 대수는 총 10대로 신청자는 LPG 신차구입과 조기폐차 사업을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부안군청 환경과에서 방문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해 깨끗한 공기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정읍 대표 관광기념품을 선정해 관광기념품대를 설치했다.

정읍의 향기 담은 퍼퓸 사세요~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에 관광기념품 전시 홍보

정읍시는 정읍을 상징하는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읍을 대표 관광기념품을 선정해 관광기념품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9~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기념품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8년에 공모한 21명의 43개 작품 중 전문가 심사와 관광객 선호도 조사를 거쳐 상위 10명(식품제외)의 작품을 선별했다.

선발된 기념품은 지난 9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정읍휴게소 등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5개 장소에 기념품 마케팅대를 설치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정읍의 향기를 담은 퍼퓸 사세(perfume sachet)와 소이 캔들, 내장산과 정읍시를 모티브로 한 나무 조각 퍼즐과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만든 보드게임 등 종류가 다양하다. 시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기념품을 홍보·판촉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기념품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읍시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ch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